

『自然休養林의 造成과 管理』

□ 자연휴양림의 개발이용 및 관리 개선방안	김세천
□ 자연휴양림의 성격과 개발방향	변우혁
□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고려한 자연휴양림의 개발	서주환
□ 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요구와 위상	김성일
□ 자연휴양림의 시설계획 및 설계	신상섭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자연자원을 이용한 위락 및 휴양활동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져가고 있어 자연풍경지의 보호와 더불어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토록 할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여기는 과거와 달리 모든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중 여가시대로 들어섰고 여가활동과 그 질적수준이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한 만족과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여가는 생존과 생계를 위해 남아있는 잔여시간이 아니라 여가 시간을 통하여 개인이 느끼는 자유로움, 삶의 보람을 찾는 심리적 차원에서 정의되고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생활의 일부로서 뿌리 내리고 있다.

자연휴양지는 개인적 차원에서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이용하며 개인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서 취급되어야 하고 일상적이고 인공적인 생활환경을 떠나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수행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국민여가 관리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권장할 만한 건전한 이용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산림의 자연휴양적 기능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국공유림 뿐만아니라 사유림에 대해서도 보건휴양기능 확보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 방법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천연림과 인공림이 조화롭게 분포되어 잘 보존, 육성되어온 산림의 일부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여 국민휴양의 장으로 개방하고, 산림의 효율성을 새롭게 인식시켜 산림투자 의욕을 증진시킬 뿐만아니라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 특히, 산림에 대한 보호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기회로 삼고자 본 주제와 같은 내용을 기획하였다.

(企劃: 金世泉)

自然休養林의 開發利用 및 管理改善方案

金 世 泉

(全北大學校 造景學科 教授)

1. 自然休養林의 概念

자연휴양림은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야의 휴양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산림소유자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山林廳長이 지정·고시한 산림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자연공원, 유원지 등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산림생산과 山主의 소득향상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휴양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도 자연 자원 중심의 이용과 저밀도 개발, 자연 학습 및 교화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 산림생산, 산주의 소득향상 등의 3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자연휴양림은 자연 생태계를 유지, 보전하면서 임산물과 공익재의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질서있게 개발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산림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대국민 산림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산림을 의미한다.

즉,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의 다목적 이용 중 공익적 효용으로서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한 보건 및 휴양을 위해 제공되는 산림이다. 이는 기존의 임업경영활동과 결합되거나 독립된 휴양기회 제공으로 한정된 임지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연생태계의 보전, 임산물의 생산적 기능과 자연자원중심의 옥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국민의 보건휴양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의 성격, 시설규모, 개발수준 측면에서 기존의 공원이나 유원지, 도시림 등과 구분되는 독자적 위상을 갖는다. 또한 여가 활동적 측면에서 자연휴양림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일상적 도시생활의 긴장과 번잡함을 벗어나 임내에서 편히 쉬고,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정신적 육체적 휴식과 건강의 유지, 향상, 치유 등의 심신관련적 활동과 교육, 문화적 교양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창조적 활동과 심리적 만족 및 즐거움을 목적으로 자연적이고 비도시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옥외행락활동을 위해 일반에 개방되는 산림이다.

2. 山林의 休養機能

산림의 일차적 목적은 목재와 같은 임산물의 생산에 있으나 고도 산업화 사회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적 수요가 급증하여 산림은 국민보건휴양, 정서함양을 위한 공익재 생산의 최적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환경재 생산을 통한 산주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채고에도 기여하게 되어 지역개방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세에 비추어 산림의 자연휴양적 기능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특히 국공유림의 보건휴양기능 확보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 방법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산림의 휴양기능으로는 산림 레크리에이션 기능과 교화적 기능, 지역 개발 기능 및 임업 경영적 기능 등이 있다.

산림 레크리에이션의 기능으로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움과 개방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산림

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서의 역할로서 최적의 장소이다. 또한 산림은 산소를 공급하고, 수목의 체내에서 발산되는 피톤치트(Phytoncide)에 의한 보건 휴양기능과 쾌적한 온습도를 유지해 줌으로 해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해 준다.

교화적기능으로는 인간이 원래의 자연성을 회복함으로써 세상의 여러가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석학들의 깨달음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비단 동양의 어진이 뿐만 아니라 서양의 철학자들도 숲속을 거닐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삼림은 그 자체가 조용하다는 이미지를 갖는다. 특히 녹색이 주는 안정감은 크다.

산림은 삼림만으로 경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 농경지, 수면, 암석등 여러가지 경관요소가 어우러져 이루어지므로 도시생활에서는 반대되는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된다.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개발효과는 크게 세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이고, 둘째는 산촌지역의 생산 및 유통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산촌의 도로, 통신, 교육, 의료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주는 것이다.

현재 산림의 목재 생산기능에 의존하는 임업경영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산림이 우리나라의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은 목재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인의 휴양처로서도 활용될 수 있어서 그 이용성이 다양하다. 산림의 휴양자원적 기능에 대한 이용자들이 부여하는 가치는 그 산림이 소재하는 위치와 풍치 등의 자원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3. 자연휴양림 개발조성의 목표와 기본전제

휴양림의 개발조성 목표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수준을 정하고, 향후 계획 달성을 위한 자연적 환경의 장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유도, 보건 및 휴양의 장, 자연관찰 및 교육의 장, 청소년을 위한 공간, 3차 산업으로서의 장 및 임업투자 의욕 고취 등을 검색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산림을 통한 건강증진이다.

둘째, 기존수림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셋째,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째, 임내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환경오염의 예방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이용자의 수요예측 및 활동의 계획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시설물의 적정배치가 필요하다.

여덟째, 관련법규의 검토 등을 들 수 있다.

休養林의 시설은 대부분이 基本施設 중심으로 단순하고 도입시설의 내용이 휴양림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휴양림별 이용계층 및 이용계절과 이용활동에 있어 다양하지 못하다. 따라서 휴양림의 立地의 특성 및 利用圈域의 大小에 따라 개발유형을 구분하여 개성있는 휴양림을 개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自然休養林의 需要와 供給展望

변우혁(1991)등이 연구 발표한 自然休養林의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목표년도인 2001년의 휴양림 수요는 연간 총 방문일수(人·日)를 예측단위로 하여 산출되었는데, 예측방법별로 세가지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 * 參與意圖의 設問調査法 : 16,651천명
- * 類似現況의 趨勢適用法 : 평균-14,540천명(최대 : 27,088천명/최소 : 9,956천명)
- * 2次資料에 의한 需要分割法 : 평균-10,775천명(최대 : 12,801천명/최소 : 8110천명)

이상의 세가지 예측결과를 종합한 구간 추정치는 최소 8,110천명에서 최대 27,088천명(人·日)이며, 목표년도의 정책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點推定値로서는 16,651천명이 제시되었다. 이와같이 자연휴양림의 총 수요량은 1988년 기준으로 국립공원 이용자수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도립공원과는 비슷한 수준이고, 군립공원의 약 10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自然休養林의 이용밀도를 다른 것과 비교하기 위하여 ha당 1일 이용밀도를 구해보면, 山林廳에서 지정고시한 휴양림 111개소의 총면적이 69,311ha, 목표년도의 自然休養林 수요량이 16,651천(人·日)이므로 이것을 단순평균하면 약 0.65(人/ha)이 산출된다. 이는 1988 현재의 도립공원(0.84)수준보다는 약간 낮고 국립공원(0.16), 군립공원(0.17)에 비하면 약 3배 정도로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수요 예측치에 의해 목표년도인 2001년의 전국 休養林의 1일 평균 방문일수(人·日)는 휴양림의 계절형을 3계절형(3계절형 : 1/60)과 회전율을 4시간(4시간/1일 : 0.5)으로 가정하였을 경우에 최대시 약 138,000(人·日)이 된다. 이러한 참여량은 1991. 5. 15일자로 지정 고시한 휴양림의 개소수인 111개소로 환산할 경우 1개소당 약 1,243(人·日)이 방문하는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1991년을 기준으로 지정고시한 휴양림 111개소는 추정된 2001년의 수요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과밀이용이 예상되므로, 山林廳에서는 국민 휴양수요의 증가정도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自然休養林의 공급을 擴大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5. 自然休養林의 利用 現況

1991년 5월 지정·고시되어 향후 조성될 자연휴양림은 총 111個所, 69,311ha로서 이중 국공유림이 84개소, 사유림이 27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사유림은 조금 늘었으나 여전히 所有 主體가 偏重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地域別 分布狀態는 배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山間奧地型이 47개소, 中小都市隣接型이 43개소, 대도시인접형은 21개소에 불과하여, 향후 이용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過密하거나 過疏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각 년도별 개소별 이용실적은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객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계층별로는 10대의 단체 이용객에 많이 편중되고 있으며, 주로 하계방학 기간의 수련회나 단체모임에 참여하는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다양한 이용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表 1〉 自然休養林 年度別 利用實績

區 分	年度別 利用實績				
	計	'89	'90	'91	'92
○ 個 所 數(個所)	37	4	8	14	21
○ 利用實績(名)	2,508,359	44,269	624,072	814,936	1,025,082

(자료 : 산림청)

(表 2) 自然休養林 個所別 利用實績

(單位:名)

機關別	休養林名	年度別利用實績					備考
		計	'89	'90	'91	'92	
計		2,508,359 (37個所)	44,269 (4個所)	624,072 (8個所)	814,938 (14個所)	1,025,082 (21個所)	
原州	유명산	130,387	10,800	45,428	33,969	40,290	경기, 가평
江陵	대관령	120,544	16,669	32,414	39,450	32,011	강원, 명주
京畿	畿 용추계곡	15,840	600	1,800	3,800	9,640	경기, 가평
慶南	이천	232,900	16,200	75,600	75,900	65,200	경남, 울산
原州	중미산	13,821	-	5,000	2,483	6,338	경기, 양평
大田	만인산	1,218,550	-	337,500	403,500	477,550	대전
全北	대아	13,109	-	3,330	3,720	6,059	완주
慶南	용추	514,630	-	123,000	230,000	161,630	함양
原州	청태산	24,404	-	-	2,648	21,756	강원, 횡성
安東	청옥산	47,517	-	-	12,000	35,517	경북, 봉화
忠北	박달재	13,246	-	-	1,220	12,026	제천
忠南	칠갑산	2,345	-	-	809	1,536	청양
全南	백아산	11,770	-	-	2,469	9,301	화순
慶北	청송	11,368	-	-	2,968	8,400	청송
原州	삼봉	1,112	-	-	-	1,112	강원, 홍천
安東	공고산	40,089	-	-	-	40,089	경북, 울진
忠北	장용산	22,390	-	-	-	22,390	옥천
忠南	만수산	22,821	-	-	-	22,821	부여
全北	와룡	9,095	-	-	-	9,095	장수
全南	유치	3,856	-	-	-	3,856	장흥
慶南	거제	38,565	-	-	-	38,565	거제

(자료: 산림청)

6. 自然休養林의 管理 改善方案

자연휴양림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능성의 확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 및 유지관리의 여부에 의해 그 효용이 좌우된다 하겠다. 휴양림 이용유형이 휴양위주의 장기체류형인 점을 고려하여 가족, 친구, 친지 등의 이용객들을 위한 피크닉장, 숙박시설과 노인층을 위한 요양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눈썰매장, 임산물 채취, 단풍제등 계절적 風味에 맞는 시설 및 행사를 개발하여 4계절 이용을 모색한다.

휴양림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 조직, 기능, 제도 등의 표준화 내지는 기준화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 배경이 크게 작용된다. 따라서 관리 예산과 인력 배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휴양림의 이용자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이미 운영관리에 불만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휴양림이 더욱 확대조성되고 이용율이 높아진다면 지금과 같은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리예산과 인

력배치에 대한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계절적으로 탐방객 수요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인원의 수에도 신축성이 있는 조절이 필요하다.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운영방식에 따라 휴양림시설의 직접관리, 휴양림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자연자원보호 및 청소업무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것은 수익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애착심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받도록 한다.

휴양림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집단고성방가, 산발적인 취사행위를 금지하여 휴양림서 유지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휴양림 및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휴양시설은 물론 휴양림내 주요식생, 경관보호를 통하여 이용자의 매력을 더욱 높힐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이용허용량에 따라 이용자 수 및 이용시설의 제한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휴양림 시설물들의 遊休 및 過疏利用에 따른 시설투자의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하여 기본시설이라고 모두 다 도입할 것이 아니라 해당 휴양림의 특성에 따른 이용자들의 시설선호도에 따라서 시설물의 도입 및 관리에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한다. 좋은 산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휴양활동 및 풍치를 고려한 적절한 山林施設 방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휴양림 시설중 숲속에서의 휴식공간의 확보가 미흡한 것은 間伐를 통해 林內를 疏開시키거나 피크닉장을 겸한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토록 한다.

탐방객수는 계절적으로 변화가 크므로 지원 및 시설이 적절한지 이용허용량에 입각하여 이용객 수를 통제, 이용지구를 제한 또는 이용자의 계몽을 통해서 지원 및 시설을 보전하고 탐방객에 대해 직접, 간접적인 탐방활동 보조, 즉 서비스를 통해 탐방의 쾌적성을 높히도록 한다.

관리사무소는 계획부지내에서 진입공간과 가까운 시설지구 중심 진입부에 배치하고 관리인의 숙소 및 발전시설, 고정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연계하여 설치한다. 휴양림의 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총괄하며 정직원 및 임시직 관리인을 배치하여 제반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휴양림 담당 산림공무원의 Forest Ranger 교육과 함께 이용자 수준에 맞고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관리사업소는 개발대상지내의 운영을 총괄하는 바 단지내의 관리, 안내, 방송, 통신, 보안 등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관장한다. 휴양림의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고 자연학습과 국민교화의 효과가 미진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관리내용을 크게 환경위생관리, 자원시설관리, 서비스 관리,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전담인원을 배치한다.

자연휴양림의 성격과 개발방향

邊 雨 赫

(고려대학교 산림자원학과교수)

1. 자연휴양림의 성격

자연휴양림의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산책로를 조성하는 정도의 저밀도 개발에서부터 관광지와 같은 고밀도 개발에 이르기까지, 분산개발과 집중개발주의, 또는 공익중심의 개발에서부터 산주의 사익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와같은 주장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단편적인 기준으로서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자연휴양림의 성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의 성격 정립은 우선 해당법규의 기초속에서 찾아야 하고, 나아가 그 성립의 배경에 대한 이해 및 공원녹지와 같은 관련분야와의 위치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자연휴양림의 성격을 산림법에서 허용하는 시설물의 종류에서 볼 때, 일본이나 독일의 자연휴양림처럼 여러가지 산림레크레이션 중에서 하나인 단위의 개념이 아니고 자연관찰교육림, 산림스포츠림, 자연학습림, 풍치탐승림 등 거의 모든 산림레크레이션을 포괄하는 종합적 기능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휴양림은 입지조건과 경영여건에 따라서는 소극적일 수도 또는 적극적일 개발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의 성격은 시설의 다양성이나 개발밀도의 고저 및 공·사익의 추구관계에서 규정되어질 것이 아니라 자연휴양림의 성립배경인 입업정책적인 의의를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가! 즉 다목적 산림경영의 수행가능성 여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적인 산림생산을 하면서…」라는 전제가 공원이나 관광지와 구별되는 것이며, 자연휴양림은 「산림경영의 조성을 위한 제도」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즉 산림생산의 전제가 되는 임도의 개발과 유지비용의 조달, 생산물의 합리적 이용과 판매 등의 유리성 확보, 고용의 증대, 입업의 구조개선 및 산촌의 개발효과 등이 나타날 때 자연휴양림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이 공원·녹지체계 속에서 자연휴양림의 독자적인 위상을 갖게 해주고 이들과 구별되는 점이라 하겠다.

2. 성과와 문제점

지난 5년간의 자연휴양림 개발정책은 제도정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가장 큰 업적은 자연휴양림의 개념이 정립되어서 공원녹지체계상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마련한 점이며, 이를 토대로 산림법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경입업의 장을 여는 효시적 의미를 갖고 있다.

휴양시설물 설치에 관해서는 골프장과 스키장은 타법과의 지축으로 포함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수렵장, 양어장 등의 특수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림법 시행령 제32조 3항에는 “기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시설물”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시설물 종류에 대한 확대발전의 여지가 되는 것으로써 법적 근거는 대체로 마련되었다고 본다.

또 전국에 걸쳐 지정고시된 자연휴양림이 총 111개소, 69,311ha에 이르며 전 임야면적의 1.07%에 해당된다. 자연휴양림의 사전적 지정고시는 앞으로의 개발을 시간여유를 갖고 계획적·체계적으로 할 수 있

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공원법과 같은 타법으로부터 입지를 보호하는 전략적 의미도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지정면적이 자연공원의 지정면적에 비하여 극히 소규모이고 또 사유림의 지정비율이 6.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여서 환경입업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와같이 자연휴양림 개발에 관한 상위차원의 준비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조성과 관리 운영면에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연휴양림의 개념이 실제 조성에서는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기능이나 효율성 보다는 외관과 구색 갖추기에 비중을 둔 형식주의에 흐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이 갖는 입업정책적 의의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양적성장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적 집행과정에 생길 수 있는 경험부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국·공유림 중심의 관 주도형의 개발에 원인함도 크다고 보인다. 이와같은 관료적 개발은 훼손이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모범적 조성」을 유도하는 장점도 지니고 있으나, 형식에 얽매어 휴양림 조성 본래의 의의를 망각하거나 창의성을 잃을 우려를 갖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3.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

가. 자연휴양림의 개념에 충실

자연휴양림의 개념은 휴양적인 면, 산림생산적인 면, 산림소득의 제고라는 세가지 기능의 실천에 있다. 그러나 이들 기능간에는 상호배타적인 요소가 있어 어느 한 기능이 극단적으로 흐를 경우 전체적으로 편익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휴양은 자연휴양림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기능으로서 제공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휴양의 성격이 결정된다. 휴양은 체재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휴식·휴게·휴양의 세단계로 나누어지는데 휴식·휴게는 공원과 같은 곳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최종단계인 휴양은 보건·건강의 개념을 가지며 장기간의 체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일반인을 위한 숙박기능이 미비된 상태하에서는 진정한 휴양의 단계에 이르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휴양림의 이용율을 낮게 하고 가족 중심형의 휴양림으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숙박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휴양의 최종단계인 「장기간 체류형」의 휴양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보며, 외국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silvertown, 산림요양원, 산림보육원 등의 조성이 시도되었으면 한다.

- 산림생산은 자연휴양림의 조성명분이 되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심한 벌채 등의 산림사업은 오히려 전체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풍치사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산림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은 법정규정은 아니지만 계획개념으로 도입할 만하다. 입지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서 시설지구, 사업조정지구, 풍치정비지구, 풍치보존지구로 지구를 구분하여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휴양림에서의 보속개념은 목재공급의 보속(협의의 보속개념)이 아니라 목재생산의 보속(광의의 보속개념)이면 충분하다고 보며, 임도의 개발과 유지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산림사업을 질서 있게 행할 경우에는 이용객에서 좋은 학습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특히 표고, 산채, 양봉, 양어 등의 부산물 생산체계를 갖추면 소득원 확보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휴양시설물로서 이용될 수 있어 유리하다.

- 산림소득 향상기능은 휴양림에서 가장 목적이 되는 부분으로서 경제성 원칙에 입각한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의 수입으로는 소득제도가 어려우므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로서 캠프장에서 캠핑장비 일체를 임대하고 취사용품을 판매하거나, 부산물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산물 판매 센터도 함께 운영하며, 산막·임대빌라 등도

경영규모가 될 수 있는 단위로 조성되어야 한다. 일본의 예를 들면, 양어장에서 생산한 고기를 낚시 또는 판매하고 즉석구이까지 연결하는 등의 생산우회화를 높이고 있다.

나. 단계적 개발의 유도

대부분의 휴양림에서 현재의 이용패턴은 하계절만 이용되는 1계절형 이용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점은 앞으로 시설의 다양화와 홍보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우리나라의 여가일수와 여가 이용형태로 볼 때 대체로 많은 기간이 걸린다고 보인다.

따라서 시설의 유효화와 비경제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용객의 증가에 비례하여 개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가조건이 배려되어야 한다.

다. 기능성과 효율성

디자인 원리 중에 「기능은 미」라는 말이 있듯이 시설물의 형태, 구조, 재료 등이 기능적이고 실용적이면 그자체가 아름다움이 된다.

통나무집도 구조에서 형태까지 기능적이어야 하고 그 규격을 모듈(Module)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해야만 통나무집 조성의 의의가 있게 된다. 취사장의 기능도 단순 취사 기능에서 벗어나 식사기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 주변에 식탁군을 배치하여 모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놀이터와 같이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의 조성은 잘못된 것이며, 간단한 놀이기구나 벤취, 탁자 등은 자체산림에서 생산·조달토록 해야 한다.

라. 부수적 효과의 창출

휴양림제도는 국민의 휴양수요에 부응하면서 산림소득을 제고시키는 환경임업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업정책적 관점에서 여러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 고용증진 : 휴양림에 산림노무자를 상근시켜 하계절에는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에, 춘계와 추계의 비수기에는 산림사업, 그리고 동계에는 시설물의 보수와 제작에 투입시킴으로써 경영의 합리화, 고용의 증진, 개성있는 휴양림의 조성 등의 효과를 갖도록 한다. 휴양림 관리전문인, 산림노무자의 양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또 일정규모이상의 휴양림 또는 특수시설이 있는 휴양림에서는 산림 노무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겠다.
- 협업체와 기업림의 참여 : 협업의 활성화와 기업림의 육성은 임업경영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산림정책으로서, 이를 조장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과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한다.
- 임업경영기반 조성 : 임도개선은 가장 중요한 경영기반 조성이 되므로 시설기준에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며, 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해서 휴양림 최소면적규모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본질은 산주의 소득제고를 통한 임업경영의 조장에 있는 것이므로 행정당국은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가조건에서 배려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산림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휴양림조성사업은 조경이나 토목, 건축사업처럼 몇개월만에 단기조성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산림생산업의 일환으로 원자재의 자체조달, 직영조성의 형태로 발전해야만 원래의 조성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고려한 자연휴양림의 개발

서 주 환

(경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최근 고도 산업사회로의 변천은 국민생활의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초래하였고, 특히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과 내용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제 여가시간은 生存과 生計를 위해 남아있는 잔여시간이 아니라 여가시간을 통하여 개인이 느끼는 자유로움, 풍요로움 내지는 삶의 보람을 찾는 심리적 차원에서 정의되고, 현대인의 일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생활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같은 思考의 轉換은 오늘날과 같이 도시환경이 인간의 생활을 수용하는 생물적 환경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역기능을 노출시키고 있음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人工化, 非自然化 되어버린 대도시 환경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연성이 강한 환경하에서 레크리에이션활동을 추구하려고 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원래 원시적 자연환경을 동경하는 본능적 욕구를 갖고 있으며, 자연속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행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의 가장 유효한 해결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 대 자연의 숲은 생리적, 심리적 효용을 가져오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특히 정신적으로 피로한 도시민에게는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자리로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전국토의 67%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산림의 多機能的 이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간을 위한 보건휴양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산림의 존재로서의 발휘효용인 자연에의 회귀, 복귀등 인간의 본성에서 우리나라는 심리적 측면과, 환경의 정화 등의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보존측면, 재해방지 등의 환경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용으로서의 효용가치인 임업생산 등의 생산적 측면, 레크리에이션 측면, 교육적 측면, 보건 위생적 측면에서의 효용도 간과할 수 없는 주요 효용가치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관이 수려하고 최적의 휴양기능을 갖춘 산림은 자연휴양림으로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여가수요를 충족시키는 국민 휴양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자연생태계가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할 공간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인간의 적극적 이용과 자연의 공존이 요구되는 공간적 특성을 지닌 兩面性의 空間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최근 모든 환경개발계획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 문제로 귀결되며, 특히 자연을 위주한 산림내에서의 제한적 개발을 추구하는 자연휴양림 개발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휴양림 개발이 제반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개발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開發과 保存 그리고 人間과의 關係性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류는 태초에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로 여러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文化와 文明을 가진 동물로서 실로 인간 스스로가 생각해도 찬탄을 금할 수 없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특히 인간은 지구라는 한정된 토지공간 속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장소, 좀더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즉 '도시'라고하는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 그 공간 속에 문화와 문명을 쌓았다 허물고, 다시 쌓고하는 일련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점차 인류문명에 대한 회의론 내지는 견제론이 대두되고 있음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부심에 비추어 볼 때 자못 逆說的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이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처해있는 주변의 환경을 되돌아 보면 앞서 말한 우려의

소지가 전혀 근거없는 논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은 얼마나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지 필설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즉, 태초의 그곳에 있었던 지구는 지금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점차 제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자연뿐 아니라 인류도 자연과 함께 共滅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죽어가고 있는 自然生態系를 되살리자는 운동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만세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충분한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여서는 안될 점은 자연을 되살리고 회복하자는 노력이 반드시 모든 개발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논리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삶의 형태가 원시시대의 형태를 벗어난 오늘날, 필요하고도 적절한 인간을 위한 행위의 한 종류인 것이다. 흔히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가장 훌륭한 휴식처라고 말들하지만 이미 한계수용의 단계를 넘어서 자연자원 대 인구비를 생각하면 자연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동시에 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와 조절에 의한 개발행위, 즉 자연휴양림과 같은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휴양림의 개발과 자연생태계의 보존의 상충을 어떻게 융합시켜 나가느냐 하는 점 또한 자연생태계의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일반적 통념상 '개발=파괴'라고하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자연휴양림 개발시 결과를 복잡하고 기계적인 생활양태 속에서 점차 잃어가고 있는 인간의 도덕성 및 가치관의 정립등 인간 내면세계의 영역을 살찌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의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신의학자들의 말처럼 제한된 환경속에서의 연속되는 스트레스의 누적에 병들어 가고 있는 도시인들의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리크리에이션(recreation)자리의 마련은 자연파괴라는 위기감보다 더 우선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파괴된 자연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자연을 위한 생태계의 회복인가 아니면 인간을 위한 생태계의 회복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인간의 모든 개발행위는 모두 생태계를 파괴하고 악영향을 미치므로 인간에 대한 문제는 접어두고 자연회복 운동에만 전념하면 모든 환경문제는 해결되는 것인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오늘날 복잡하고 어지러운 인간과 인간의 관계속에서 정신적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인간에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잠시 물러나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주는 것 또한 이 지구를 이끌어 가고 있는 만물의 영장을 생각하는 배려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생태계라는 범주속에 인간도 하나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면 인간 또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人間生態系를 무시한 자연보존은 충분한 정신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인간성의 파괴로 말미암아 자연 파괴에 의한 지구의 멸망이전에 인간 스스로의 自滅에 의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단순 논리에 의한 자연보호나 자연생태계속에 인간만을 위한 개발에 양극적 개념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개발의 수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방법론의 개발은 자연휴양림 개발에 수반되는 제반 環境影響的 問題點 및 開發 內容의 문제점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휴양림 개발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자연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생태와 인간행위의 비교 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물가에 서식하는 비이버(Beaver)는 편안하고 안락한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울가 독에 땅을 파고 나뭇가지를 쌓아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서식처 근처 개울의 적당한 부분에 뽕나무와 돌과 진흙 등의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댐을 막고 고인 물속에서 수영을 즐기고 먹이도 구한다. 이와 같은 그들의 행위를 자연 파괴 행위라고 한탄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반면, 인간이 산림속에 숙박을 위해 집을 짓고 물놀이를 위해 개울에 댐을 막았다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모

든사람이 개탄할 것이다.

한편 인간은 도심지 내에 온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있어도 심산유곡의 좋은 터를 보면 별장을 짓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될 수 있으면 좀더 많은 별장의 소유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동물들은 안식처를 위해 땅굴을 팔 때 적당한 터에 한개만으로 만족하지, 이기적인 발상에 의한 별장 마련의 욕심은 부리지 않는다. 먹이도 먹을 만큼만 구하고, 저장할 하더라도 썩히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저장하지만, 인간은 이른 봄, 산나물을 뜯으러 들판에 나갔을 때 먹지 못하고 버릴지언정 눈에 보이는 나물들을 다 뜯어야만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궁극적으로 이는 조경가들에게 태초에 조물주가 지구를 만들었듯이 지구의 모든 생물체와 인간이 공존하면서,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지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인식하게 하고 올바른 자연휴양림 개발계획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요구와 위상

金 星 一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1. 사회적 요구

현재 우리는 자연휴양 기회제공을 위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 체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 대략 남한 국토의 5%정도를 점유하는 이들 공원체계는 이미 현사회의 휴양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이한 개념의 경영목표와 기회제공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휴양 시설, 서비스의 개발은 현사회의 자연스런 요구이다. 자연휴양림은 크게 다음의 네가지 이유로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

첫째, 이미 선진국에서는 휴양을 교육, 보건 등과 동등한 자원의 사회복지 지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개인소득의 증가, 노동시간의 감소, 산업화에 따른 도시 공간의 환경오염, 여가선용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휴양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림 및 기타 자연 자원의 휴양자원화는 개개 구성원의 생활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복지와 건강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은 산림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둘째, 이상적인 자연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정책의 가능성이다. 예로서, 과도한 이용으로 황폐화 되어가는 국립공원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주변에 경관의 매력은 뒤지더라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휴양기회를 제공하는 대상지를 설정하여 이용을 분산시킴으로 국립공원 등 이용에 민감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셋째,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산촌지역의 지역개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 휴양림 개발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산촌지역의 생산 및 유통활동 촉진에 따른 고용기회의 확대, 산촌의 사회간접시설(도로, 통신, 교육, 의료 등)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이루어 도시와 산촌의 소득 및 복지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림 및 연관 자연자원의 보다 적극적인 경영 및 이용을 꾀할 수 있다. 낮은 자본회수율은 임업이 갖고 있는 불가피한 장벽이지만 목재생산 이외의 다목적 이용이라는 개념하에 산림휴양을 유도할 경우 산림휴양 서비스의 생산판매를 통한 임업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휴양자원화 방안은 사유림의 경영에서도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타당성이 있다. 첫째, 산림 및 기타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다. 실제 이용자를 서비스 및 재화생산의 현장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휴양참여에 따른 영리확보 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에 대한 판매행위도 촉진되리라 기대된다. 둘째, 휴양림의 성패는 이용객의 참여도에 직결한다. 참여도는 시설물 및 주변자원의 매력과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산림 소유자가 영리의 극대화를 꾀하려면 시설물 및 자원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노력은 전반적인 산림자원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셋째, 휴양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은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의 개설이라는 측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됨으로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2001년까지 100여개의 자연휴양림을 개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중에서 상당부분은 사유림 내에서 민자에 의한 개발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3개소의 휴양림을

산림조합에 관리를 의뢰하고 있다. 관리의 주체가 정부, 정부출현 기관, 그리고 민간이라는 점이 자연휴양림이 갖고 있는 조성여건의 확실성에 다소나마 다양성을 보장하여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자연휴양림의 위상

산림휴양 활동을 위하여 산림청에 의해 특별히 지정 관리되고 있는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의 다목적 이용 중 공익적 효용으로서 국민 복지의 향상을 위한 보전 및 휴양을 위해 제공되는 산림이다. 이는 기존의 임업경영활동과 결합되거나 독립된 휴양기회 제공으로 한정된 산림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연생태계의 보전, 임산물의 생산적 기능과 자연자원중심의 산림휴양 활동을 통한 국민의 보건 휴양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지역의 성격, 시설규모, 개발 수준 측면에서 기존의 공원이나 유원지, 도시림 등과 구분되는 독자적 위상을 갖는다. 또한 여가활동적 측면에서 자연휴양림은 이용자들이 하여금 일상적 도시생활의 긴장감과 번잡함을 벗어나 산림내에서 편히 쉬고,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정신적 육체적 휴식과 건강의 유지, 향상, 치유 등의 심신단련을 위한 활동과 교육, 문화적 교양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창조적 활동과 심리적 만족 및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에 개방되는 산림이다.

자연휴양림은 도시지역이나 도시근교 등의 이용자의 유치권이나 시간적 공간적 거리에 관계없이 자원이 갖는 휴양가치의 우수성에 의해 결정되는 녹지 유형이다. 이는 이용자 지향형의 도시 공원이나 유원지와는 상이한 입지 특성을 가지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의 제공을 위한 접근성이 전제가 됨으로 일반산림이 갖는 폐쇄성보다는 다소 유연한 개방성을 갖는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개발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공원녹지, 도시림등은 일반적으로 공공단체가 개발의 주체가 되나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생산을 포함한 산림의 다목적 경영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에 의하여 동일한 절차로 개발되어질 수 있다.

휴양림은 특정 유형의 자원이며 휴양기회제공과 그에 따른 휴양경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휴양림은 단순히 산림과 부수되는 임간학교, 야영장, 산막 등의 시설물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체계와 자원과의 상관관계의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휴양시장(Recreation Market)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휴양림은 수요, 공급, 그리고 방문 후 경험의 3가지 인자로 구성되어 진다.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취미활동 참여 혹은 휴양참여 등과 같은 요구(Wants)를 생성시킨다. 이러한 요구는 (1) 휴양참여에 대한 이유 즉 동기와 (2) 개인의 선호, 과거의 경험 혹은 친지로부터 얻은 정보 (3) 이에 따른 잠재대상지에 대한 이미지를 개발시키는 단계의 결과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참여의도(Intention)로 변환되는데 이 단계를 우리는 유효수요라 칭하기도 한다. 의도 혹은 유효수요가 현실화 되는 과정이 활동참여 및 대상지방문 행위이다.

참여 및 방문은 (1) 산림, 야생동물, 대상지 물리적 성격 등으로 구성된 자원에 내재하는 매력과 목표시장(Target Market)으로부터의 시공간적 격리, 즉 접근성과 (2) 시설, 하부구조 및 경영관리 인력으로 구성되는 경영/자원체계로부터 제공되어지는 휴양기회(opportunity)를 접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산림휴양의 최종산물(outcome)인 휴양경험을 만끽하는 것이다. 이 때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공간이 바로 휴양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휴양림의 성패는 현재 공급상황에 근거한 목표시장으로의 침투전략과 역으로 현 사회속에 존재하는 수요요인을 분석하며 자원을 조작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광릉의 산림욕장은 자원상황이 적정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가족중심의 조용한 산책을 원하는 목표시장에 성공적으로 침투한 예로 볼 수 있다. 광릉산림욕장이 소극적인 개발전략의 성공사례라면 이제부터의 개발전략은 보다 적극적, 즉 수요의 뚜껑을 열어 보는데 있다고 본다. 만약 목표시장에 내재하는 잠재요소가 과다개발과 과밀혼잡의 국립공원이나 자연을 접할 기회가 결여된 일반관광지에 불만족하고 새로운 형태의 휴양자원을 요구할 경우 휴양림은 기본적으로 자연생태계의 보존위주로 소극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한편 잠재수요가 다양하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할 경우, 다

양하나 극히 제한적인 활동만을 허용하는 국립공원이나, 적극적이지만 획일적인 관광지에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의 기본방침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속성, 관리철학 등이 목표시장의 성격과 구조 속에서 공히 고려되어 휴양림의 다양한 휴양기회 제공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결국 야외휴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극히 다양하고 최소한 이들 수요가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산림자원의 관리주체는 다양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自然休養林의 施設計劃 및 設計

—問題點 및 改善方案을 中心으로—

申 相 燮

(全州又石大學校 造景學科 教授)

1. 山林, 休養林 그리고 人間

유사 이래 인간과 산림의 관계를 使用價值的 측면에서 볼때 인간은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목재의 생산 및 연료·임산물의 채취를 주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핵심적 과제였다.

그러나, 19C 이후 산림의 급격한 파괴와 함께 인간의 여가시간 증대, 소득의 향상 및 욕의 recreation 행태가 다변화 되면서 산림의 중요성이 가중되게 되었고 산림의 효용기능 또한 1) 연료 및 用材 생산 기능에서 2) 기후 완화 조절 기능 3) 환경 보전기능 4) 보건 및 휴양 이용 기능 등의 물질적 측면 위주에서 정신적 가치 측면으로 전이 되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화, 상업화에 따른 인조공간에서의 삶은 자연성을 강하게 필요로 하는 욕구로 나타난다.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며 푸르름을 대표하는 산림은 인체의 視覺(녹색이면서도 나무잎들이 바람에 나부끼어 열고 질게, 또 여러가지 색깔으로 광채를 일으키는 조화, 꽃·열매·풍치 등의 아름다움 등), 聽覺(새소리·바람으로 나무잎들이 스치는 소리·시냇물소리·벌레소리·수목을 밟는 소리 등), 嗅覺(수목이 발산하는 방향·향기·과실향기·동물냄새·버섯 향기 등), 觸覺(시원한 바람·따뜻한 햇빛·시원한 가지·잎, 열매등의 촉수 감각), 味覺(과실·뿌리·새순·약수)과 같은 5覺을 통하여 인간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매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 산림을 이용한 휴양림의 개발계획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 산림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에는 산림이 가지는 이와 같은·유형·무형의 효용가치성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개발계획이 필요한데, 특히 산림자원을 중심으로한 휴양 및 recreation 기능을 담게되는 휴양림은 한국적이면서도 인간의 이용과 자연 생태계의 유지 및 보전, 그리고 林産物의 생산이 복합적으로 수용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도입 과정에서도 서구적인 人工의 기교나 인위적 기법이 최소화되고 한국적인 전통 휴양 개념이 표출되며 향토적이면서 산림이 가지는 본연의 자연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順化된 자연상태 공간적 특성이 표출되는 계획·설계기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2. 休養林內의 導入施設 類型과 現況分析

山林을 휴양 recreation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과 공간을 도입하고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장래 山林 休養에 대한 인식과 가치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자연휴양림에 도입되는 시설공간 자체는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기존의 틀이나 일반관광 유원지의 집단시설 개념이 아닌 한국적인 산림시설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기능적인 역할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서구적인 형태의 공간 구성이기보다는 예를들어 마을의 우물가, 빨래터, 亭子木 周邊이나 傳統 生活環境林(마을 숲 또는 園木) 또는 뒷동산에서 행해지던 多意的이면서도 포괄적인 휴식·놀이·생활·문화공간 개념에 접근하는 개발 개념등을 접목시켜 우리의 전통문화와 정

서에 맞는 휴양림 공간의 창출이 요청된다 하겠다.

휴양림에 도입가능한 시설은 1) 자연삼림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의 森林保護 育成施設 2) 자연 교육 장소 제공 측면에서의 森林環境 利用 施設 3) 야외 recreation 스포츠 장소 제공 측면에서의 積極的 導入 施設 4) 기타 便益施設 等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에 관한 모범인 山林法에는 휴양시설을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는 원칙하에 시설은 계획 하되, 일정지역에 집산화 하는 것 보다는 휴양림 전면적을 휴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조건과 휴양기능에 맞게 분산 배치 계획』토록 하고 있으며 기본시설과 특수시설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항목으로 세분하고 있다.

1) 基本施設

- 가. 편의시설: 산책로, 야영장, 광장, 산림욕장, 잔디밭, 야외탁자, 벤취, 전망대, 산막(간이 숙박시설), 진입로, 순환로, 주차장, 안내판, 대피소, 관리사 등
- 나.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시설, 물놀이터
- 다. 위생시설: 취사장, 오물처리장, 급수대, 화장실, 휴지통 등.
- 라. 교육시설: 자연관찰원, 야외교실, 전시관, 임간수련장, 교육자료관 등.

2) 特殊施設

- 가. 편의시설: 임산물판매장, 양어장, 낚시터, 수렵장, 조수사육장, 산지과수원, 매점 등.
- 나. 교육시설: 산림박물관, 식물원 및 동물원 등.
- 다. 체육시설: 각종 운동시설.

이러한 법제도적 틀 속에서 기 조성된 휴양림지역의 시설공간을 보면 山林法에 명시된 기본시설공간 위주로 조성되었고, 전통놀이시설이나 특수시설 공간의 도입이 미흡하게 나타나 이용활동이 극히 단순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단위 휴양림이 가지는 향토적인 지역 image의 특징 및 장점적 요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용자 수요추정 과정이 결여되어 청소년층 위주로 단위시설공간이 조성되고 있으며 모든 휴양림에 천편 일률적으로 단위시설공간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단위시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시설 개념이라기 보다는 서구적인 시설위주(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미끄럼대, 시소, 정글짐 등이 동일하게 도입됨)이거나 도심공간에서 적용되었던 시설을 그대로 원용하거나 산림경관과 부조화되는 색상 및 재료(특히 FRP, CONC. 알루미늄, 철재)의 사용, 자연지형을 자연스럽게 이용하지 못한 공간조성과 인위적인 놀이, 체육시설의 배치(진입로, 주차장, 광장 등의 조성을 위한 과도한 절성토, 지형을 이용하지 못한 미끄럼대 시설 등), 범죄예방 이용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조명시설의 배치가 문제시 되고 있다.

그리고 한정된 권역에 시설 공간 및 단위시설이 밀집되어 소음유발, 이용자간의 마찰, 활동제약과 같은 privacy 침해가 예상되어 무질서한 시설 이용과 관리소홀로 파괴된 시설 등은 쓰레기, 수질오염과 함께 삼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인자로 작용되고 있다.

3. 休養林의 施設計劃과 設計方向

대부분의 목적공간에는 의도적인 시설물이 배치, 배분되거나 토지이용에 따른 일정한 기능적인 공간체계를 유지하며 조성되게 되는데 휴양림 지역에서는 공간 활용적 측면에서 자연의 利用과 保存이라는 자연경관적 특성이 유지되는 시설 배치 개념을 상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도입가능 시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開發概念에 따른 導入可能施設

開發概念	景觀特性	開發方針	利用行態	導入可能施設
積極開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곡부 또는 능선 하단부로 비교적 평탄하고 접근이 양호 ○ 식생이 양호하고 개천이 흐르며 비교적 다양한 경관 형성 ○ 기존의 이용이 가장 활발 ○ 능선 하단부는 裸地 또는 과수원 · 밭으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가용지를 활용하여 적극적 활용공간으로 계획 ○ 산복부 또는 정상부의 지원 공간으로서 기능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연령층이 이용 ○ 야유회 · 휴식 · 오락 · 놀이 · 게임 · 약수터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 야유회장 · 어린이놀이시설 · 광장 · 관리사무소 · 노인정 · 휴게소 · 오토캠핑장 · 야영장 · 매점 · 전시관 · 물놀이시설 · 수영장 · 진입로 · 산지과수원 · 놀이마당 · 임산물판매장 · 산림박물관 · 식물원 · 동물원 · 기념비 · 약초원 등
緩衡的 開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부와 산록부의 천이지역으로 정상부와 산록부의 중간적 경관특성을 가짐 ○ 자연성이 높고 부분적으로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에서 식별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지역에 큰 규모의 裸地가 드러나거나 切開面이 생기지 않도록 과도개발 억제 ○ 다양한 특유의 산림 「레크레이션」 시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 장년층이 이용 ○ 배드민턴 · 단체오락 · 약수터 이용 야영 · 야유회 · 체력단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 · 숙박동 · 배드민턴장 · 휴게소 · 청소년시설 · 소형운동장 · 체력단련시설 · 산책로 · 삼림욕장 · 자연관찰원 · 야외교실 · 임간수련장 · 수련장 등
消極開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의 정상부 또는 집수구역을 형성하는 능선부로 시각적인 노출이 가장 많고 비교적 전망이 양호함 ○ 경사가 심하고 계곡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접근이 곤란하고 시설부지의 확보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부와 주능선축을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경관의 전망효과를 이용 ○ 외부에서 조망되는 정상부의 「스카이라인」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과도한 개발을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또는 관심 있는 소수가 이용 ○ 등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전망대, 대피소 등

한편 도입가능시설에 대한 공간규모 산정은 계획, 구상단계에서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미래 상황 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전년도 peaktime 이용객 추정과 국내외 사례지역의 예를 통한 이용객 추정(외국 2,092m²/인, 국내 2,500m²/인) 생태적 수용능력에 근거한 추정(자연림 5,000m²/인, 시설지 50m²/인) 방법 등을 도입한 계량이 가능할 것이며, 세부도입시설에 대한 원단위 규모 및 기준을 활용한 규모산정은 시설물에 대한 설계 지표 설정에 중요한 준거 기준이 된다.

이상에서 열거한 도입가능 시설 및 공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자연 휴양림 지역에서의 계획설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施設空間

*問題點

- 토지이용과정에서 서구적인 개발모델도입 또는 일반관광유원지나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개발 사례 답습
- 기초시설 중심의 단순한 기능공간 구성으로 이용을 저감
- 밀집된 시설공간의 조성으로 privacy 침해 및 자연 생태환경악화
- 단위 휴양림이 가지는 시설공간적 특징 결여로 신선감 상실
- 청소년이용 중심의 시설공간 구성으로 다른계층 소외

*改善對策

- 우리의 전통놀이, 휴식, 생활 공간적 image를 담은 공간의 접목과 특정기능을 담은 단일목적공간 성격의 개발보다는 다목적 공간의 확보 및 환경영향이 큰 시설 공간을 최소화하는 등 토속적이면서도 산림휴양이 가지는 특수한 자연생태적 분위기연출
- 시설공간은 입지여건과 휴양기능에 맞게 분산배치 계획하여 이용자간의 privacy제고
- 지역의 특성 및 자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특징적인 휴양공간조성으로 이용을제고
- 휴양수요의 정확한 예측으로 가족, 단체, 노년층 등 계층에 따른 수요 공간 창출

2) 單位施設

*問題點

- 서구적 시설, 도심환경에 적용된 시설 등을 그대로 도입
- 시설디자인에 있어서 산림경관에 不調和되는 색상, 재료(철재, FRP, 알루미늄, CONC, 석면슬레이트 등)의 과다 사용
- 자연지형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인위적 시설도입으로 과도한 지형변화 초래
- 단순시설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내구성이 결여된 간이시설 도입(숙소, 화장실 등)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산림경관미의 저해는 물론 이용을 저하

*改善對策

- 산림경관과 조화되고 단위 휴양림의 성격에 맞는 자연소재(목재, 자연석, 물, 흙, 모래)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설 설계
- 자연지형의 표고차를 적정히 이용한 시설도입(놀이, 체력단련시설)으로 환경 저해요인 극소화
- 다양하고 흥미있는 시설도입, 耐久性과 美觀이 고려된 시설의 고급화, 시설유지 관리비 확대에 이용을 제고
- 휴양림의 입지성, 이용계층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 도입 및 향토성 있는 우리의 전통놀이 시설의 도입 등으로 한국적이면서도 개성있는 휴양림 조성

3) 기타

- 휴양림 자체가 단순한 유원지 성격의 recreation적 시설공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산림 공간에 鄉土的이면서도 文化 藝術的 活動을 담은 연출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개인적 공간 개념(HALL), 3차적 영역성 조절(ALTMAN)과 같은 사회적 환경과 행태간의 관계를 설계에 응용하여 privacy를 적절히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산림공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설계가 중시되어야 한다.
- 시설도입에 따른 휴양림 조성 완료후 利用後 評價과정을 거쳐 미비한 시설의 보완, 확충 그리고 개발유보 공간을 통한 새로운 휴양수요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